

그린(Green)을 가장한 그린워시(Green Wash)

Green Wash disguised as green

1003

친환경건축 전문가는 건축전문가들이 건축기반위에
계속적인 친환경교육과 기술연구로 접목되어야하는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환경건축전문가 양성이
녹색성장 정책의 일자리창출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정부나 개인은 물론이고 협회, 단체 등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주제는 녹색성장, 친환경, 예코, 그린이다. 이러한 단어를 배제시키면 뭔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뒤쳐진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영역과 분야를 불문하고 갑자기 너무도 많은 그린전문분야와 그린전문가가 생겨났다. 이를 걱정하는 비교 적절한 단어가 그린워시(Green Wash), 그린버블(Green Bubble)이다.

그린워시(Green Wash)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친환경기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는 환경 파괴적이면서 마치 친환경적이거나 빈곤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자신들의 시장 이익과 네임밸류를 유지하고 늘리려 한다. 즉 소비자나 정책결정자들이 거대 공해 유발 기업들을 환경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의 열쇠라고 믿게 브레인 워시를 하려는 것 즉, 결과 속이 다름을 비유한 단어이다.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중심이 아닌 주변부의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도 그린워시인데, 기업들만 그린워시를 하는 게 아니다. 학계, 단체, 정부... 지자체도 한다. 건축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부분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건축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친환경건축의 정의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사용량감소, 자원 재 활용과 환경공해 감소 기술 등을 건축에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하여 건물의 생애주기가 다하여 철거될 때까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도록 유지, 관리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그동안 쉽게 접하는 실례로, 정리되지 않은 얇팍한 친환경이론으로 쇼핑몰에서 장신구를 구매해서 건축물에 착용시키듯 반영하는 현실이다. 건축물 외장에 자연환기가 철저히 무시된 밀폐된 커튼월을 적용하여 방위와 무관하게 로이유리를 사면 외피에 적용하고, 자외선차단용 스크린을 유리내부에 설치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친환경 건축디자인이라고 역지를 부리는 병든 친환경건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의 그린워시(Green Wash) 현상이다.

정부의 녹색정책의 주요 화두인 친환경건축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업으로 하는 우리 생활 그 자체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선점하여 전공불문의 친환경건축전문가를 자칭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집고쳐주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번에는 매우 기초적인 상식으로 건축계를 대표하는 친환경건축전문가(?)로 변신하여 광고성 홍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인이 취미생활의 한 부분으로 토담집 전원주택을 지었다 하여 방송에 한번 소개 되고 나면 생태건축 친환경 건축전문가로 등극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정부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양성되는 친환경건축 전문가는 건축전문가들이 건축기반위에 계속적인 친환경교육과 기술연구로 접목되어야하는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환경건축전문가 양성이 녹색성장 정책의 일자리창출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자격기준을 실직자나 막 대학을 졸업한사람이 이수하여 친환경건축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는 한번쯤 되돌아 봐야할 정부정책의 그린워시(Green Wash)인 듯 싶다.

또한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에도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Co2배출의 50%를 차지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전문가가 배제되는 정부정책의 실상이 그린워시(Green Wash)를 넘어 그린버블(Green Bubble)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장현숙 / Jang, Hyun-sook, KIRA (주제이드 건축사사무소)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
-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